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3년 9월 생산은 전월대비 1.1% 증가(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1%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2.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9% 증가함(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 2023년 9월 소비는 전월대비 0.2%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7%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3%), 의복 등 준내구재(-2.8%)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3%)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6%)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8.7%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7%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5%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46.1%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9월	8월p	9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0.1	2.0( 1.3)	1.1( 2.8)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1.2	5.2(-0.7)	1.8( 3.0)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1.2	5.4(-0.8)	1.9( 3.0)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0.2	3.2( 10.8)	2.5(14.5)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0.4	0.3( 1.7)	0.4( 2.2)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2.5	-0.3(-4.7)	0.2(-1.9)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1.8	4.0(-14.6)	8.7(-5.7)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3	0.6( 3.7)	0.3( 3.8)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10월, 2023년 9월, 2023년 10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지수』, 각호.

### ◆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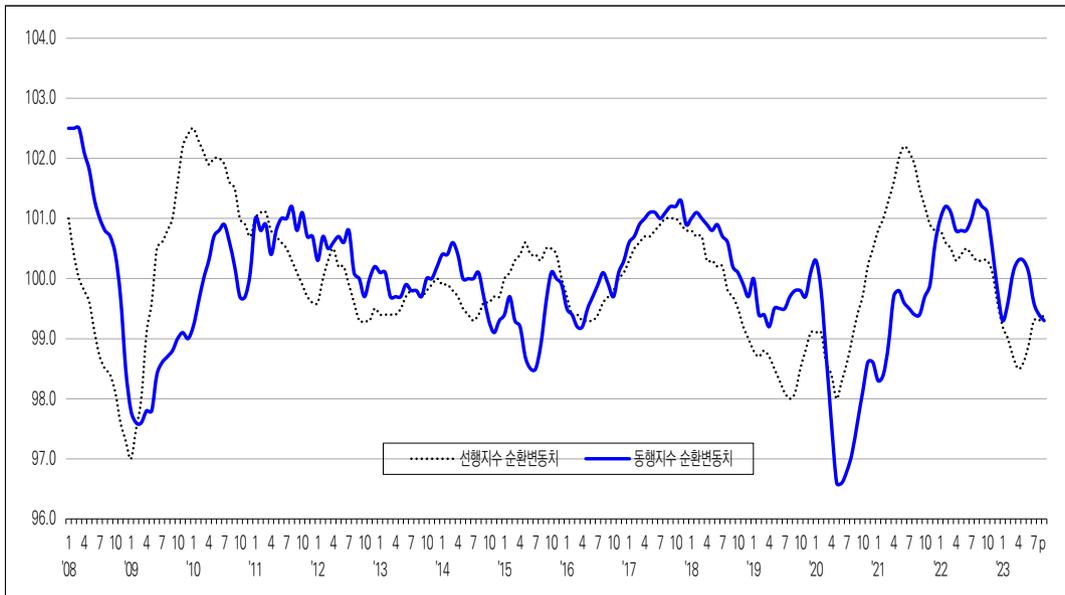
○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기타 상품·서비스, 통신은 변동 없으며, 교통(1.3%), 주택·수도·전기·연료(0.3%), 식료품·비주류음료(0.2%), 음식·숙박(0.2%), 의류·신발(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보건(0.2%), 오락·문화(0.1%), 교육(0.1%), 주류·담배(0.2%)는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3%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상승함.

◆ 2023년 9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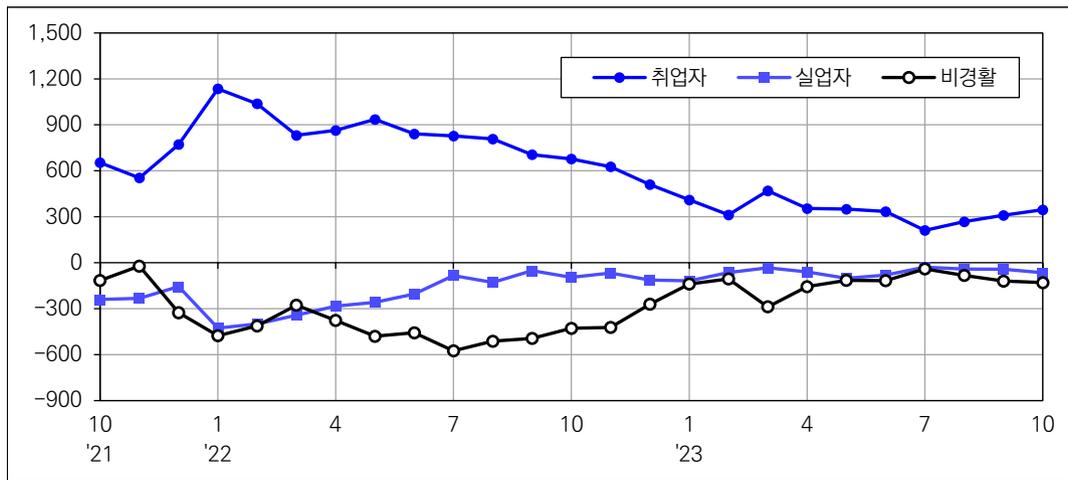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상승,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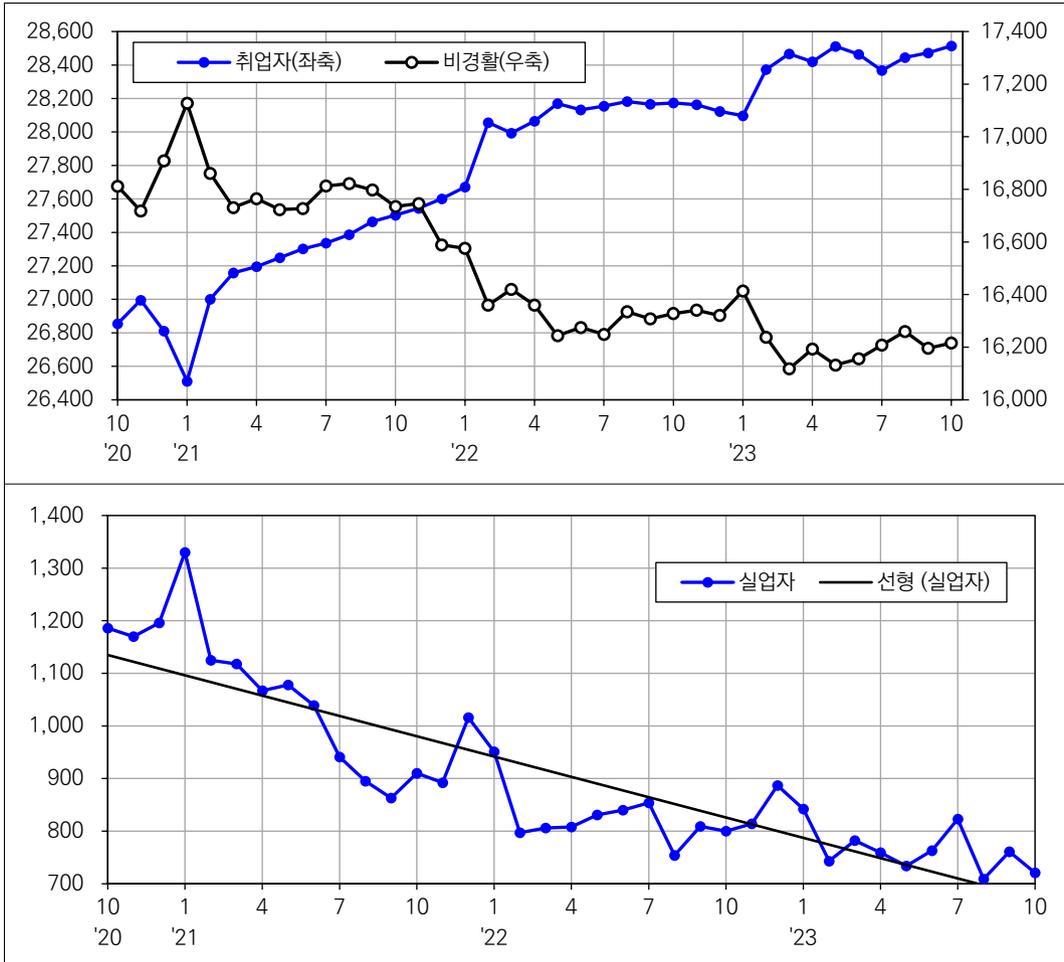
○ 2023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4만 6천 명으로 증가폭이 3개월간 지속되고 있음(전월대비<sup>1)</sup> 4만 2천 명 증가).

- (산업별) 10월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전자와 자동차 등 고용 비중이 큰 산업에서 부진함.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에서 기저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운수창고업에서 증가함. 또한, 교육서비스업은 지난달 기저 영향으로 인해 증가했기 때문에 10월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짐.
- (연령별) 전월대비 30대, 60대 취업자가 증가되었으며, 여성 위주의 30대 고용 증가가 지속됨.
- (종사상 지위별) 전월대비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임시직이 증가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10월 실업자는 6만 6천 명 감소,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9월 -4만 2천 명).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10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3만 명 감소하여 전월 감소폭과 비슷함(9월 -12만 명). 전월대비 1만 명 감소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10월은 전월대비 30대와 60대 이상에서 고용이 양호함.

- 30대에서 전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2021년 15만 명대였던 인구감소폭이 5만 명까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 흐름을 보임. 30대 초반 여성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공공행정업, 금융보험업에서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60대 이상에서 33만 6천 명 증가했으며, 여성 고령층의 경우 전 연령에서 고용률이 증가 중이며, 남성의 경우는 60대 후반에서만 감소함.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은 민간부문에서 고령층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인 운수창고와 건설, 사업시설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음.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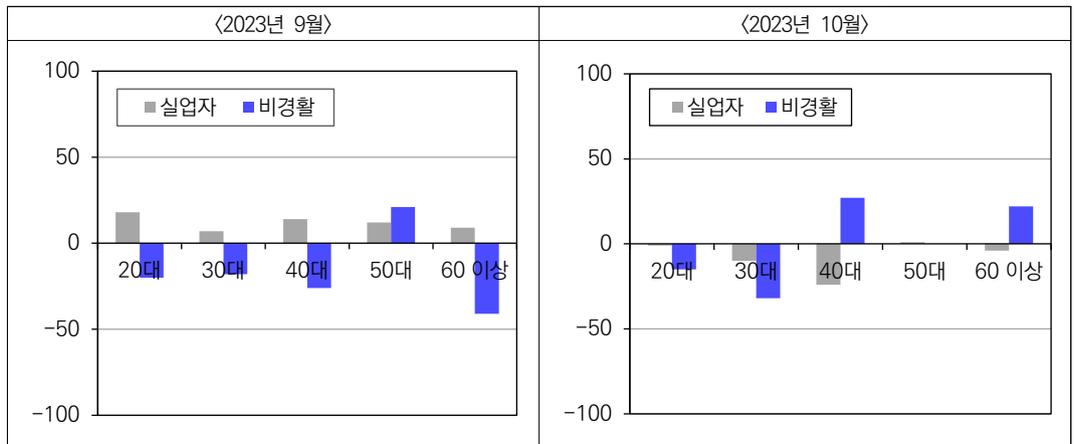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13	-3	-6	( -3)	-91	-86	-76	( 11)	64	56	110	( 54)
실업자	0	1	7	( 7)	-44	-45	-33	( 12)	-13	-11	-21	(-10)
비경황	33	20	15	( -5)	-58	-61	-82	(-22)	-115	-104	-141	(-37)
실업률	0.2	0.4	4.5	(4.1)	-0.9	-0.9	-0.7	(0.2)	-0.3	-0.2	-0.4	(-0.2)
고용률	-0.6	-0.2	-0.4	(-0.2)	0.4	0.5	0.6	(0.1)	1.7	1.5	2.3	( 0.8)
	40대				50대				60세 이상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69	-58	-68	(-11)	73	45	52	( 6)	304	354	336	(-18)
실업자	-6	-2	-24	(-22)	-1	0	-3	( -3)	23	15	9	( -5)
비경황	-52	-72	-42	( 30)	-65	-30	-25	( 5)	174	128	146	( 19)
실업률	-0.1	-0.1	-0.3	(-0.2)	-0.1	0.0	-0.1	(-0.1)	0.3	0.2	0.0	(-0.2)
고용률	0.4	0.6	0.5	(-0.1)	0.8	0.4	0.3	(-0.1)	0.5	0.9	0.8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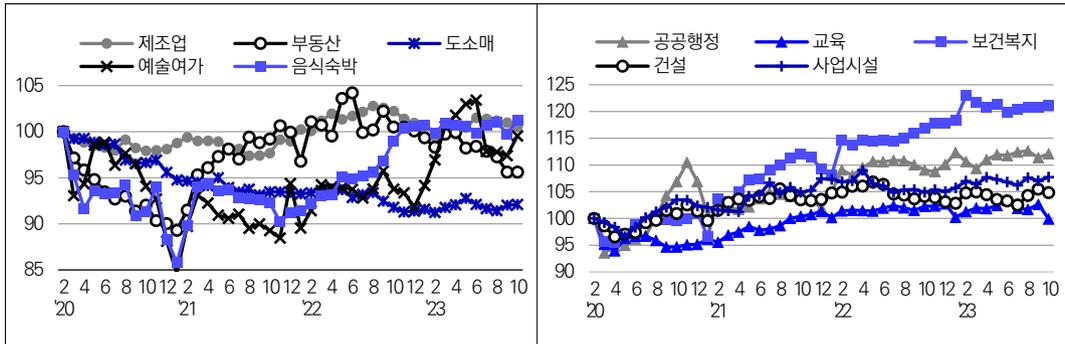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가 소폭 증가함.
-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9	-3	16	24	8	5	37	2.5
광업	2	1	2	0	1	-1	0	0.0
제조업	-69	-72	-77	-8	-10	-20	-38	-0.8
전기·가스·증기	10	11	11	6	5	-2	9	10.5
수도·원료재생	3	4	-8	2	-2	-8	-8	-5.4
건설업	-1	36	14	36	24	-13	47	2.3
도매 및 소매업	-69	-17	11	-8	21	3	16	0.5
운수 및 창고업	-16	2	29	-1	0	19	18	1.1
숙박 및 음식점업	121	66	52	6	-28	34	12	0.5
정보통신업	45	47	75	-7	5	25	23	2.2
금융 및 보험업	-4	11	11	1	-1	6	6	0.8
부동산업	-16	-36	-26	-3	-9	0	-12	-2.2
전문·과학·기술	57	67	76	-14	7	10	3	0.2
사업시설관리지원	31	22	38	19	-8	9	20	1.4
공공행정·사회보장	20	15	35	2	-14	8	-4	-0.3
교육서비스업	-6	20	-44	-4	18	-51	-37	-1.9
보건 및 사회복지	138	118	104	7	3	9	19	0.7
예술·스포츠·여가	21	9	30	0	-2	11	9	1.8
협회·단체·수리·기타	32	15	8	20	-5	-2	13	1.2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0	-8	-10	-2	5	-5	-2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10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이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도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공공행정, 사업관리 지원에서 증가하였고, 제조업에서 감소함. 임시직은 금융보험, 공공행정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부동산, 사업관리, 교육서비스업에서 감소로 전환됨.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상용직	393	435	440	-90	41	18
임시직	-14	-31	68	117	-20	71
일용직	-149	-67	-110	51	34	-4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59	39	66	1	6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34	-20	-67	10	-59	-22
무급가족종사자	-55	-48	-51	-1	1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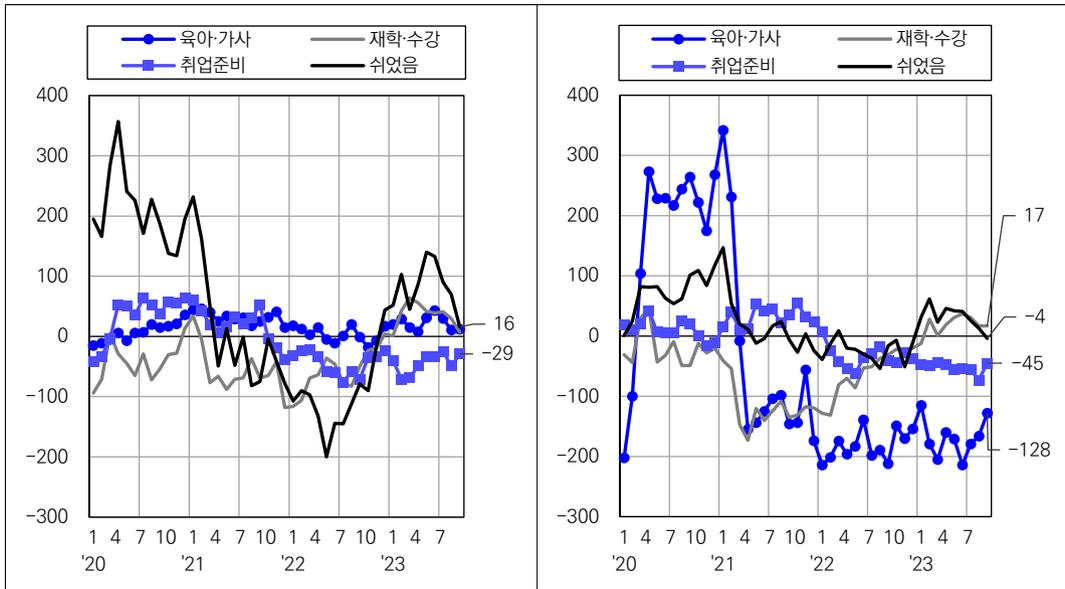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농림어업	6	4	5	-8	-7	0	-9	2	-4	-6	2	16	-25	5	6
제조업	-71	-87	-92	-6	1	3	-23	-10	0	25	19	15	-2	10	8
건설업	52	73	59	-15	-4	14	-73	-46	-76	1	3	4	3	11	11
도소매	30	68	76	-40	-66	-47	-9	9	3	8	-16	7	-12	-11	-31
운수창고	2	22	25	2	-3	10	-18	-12	-4	-20	8	10	-3	-11	-10
음식숙박	51	51	38	63	23	58	-14	-11	-20	9	17	11	-5	-6	-14
정보통신	19	4	30	11	-2	31	2	3	1	26	3	2	0	15	13
금융보험	1	3	-1	-11	-13	8	-3	-2	-1	3	2	-1	0	11	6
부동산	1	-5	5	-9	0	-9	1	0	0	2	-1	-1	-1	-17	-22
전문과학기술	40	65	72	8	-5	2	-1	0	0	2	14	14	2	-15	-14
사업관리지원	11	26	50	0	12	-7	17	9	8	17	-1	0	-4	-1	-5
공공행정	12	2	20	10	-11	13	-2	0	1	-	-	-	-	-	-
교육서비스	27	36	14	-30	14	-37	-4	-5	-4	3	1	3	-4	4	-17
보건복지	130	112	92	15	10	23	3	-1	-2	-2	-12	-14	0	6	5
예술스포츠	15	9	9	1	10	23	11	5	3	-16	4	4	1	-19	-7
협회단체	40	21	16	15	10	7	-20	-5	-11	9	-5	-5	-4	-4	1
가구 내 고용	1	-	2	-10	-14	-16	-5	0	-1	-	-	-	0	3	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0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만 명으로 전월 감소폭과 비슷함(9월 -12만 명).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5만 9천 명으로 '취업준비'(-4만 3천 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여성은 -21만 3천 명으로 '쉬었음'(-1만 5천 명) 사유에서 감소세로 전환함.

[그림 4]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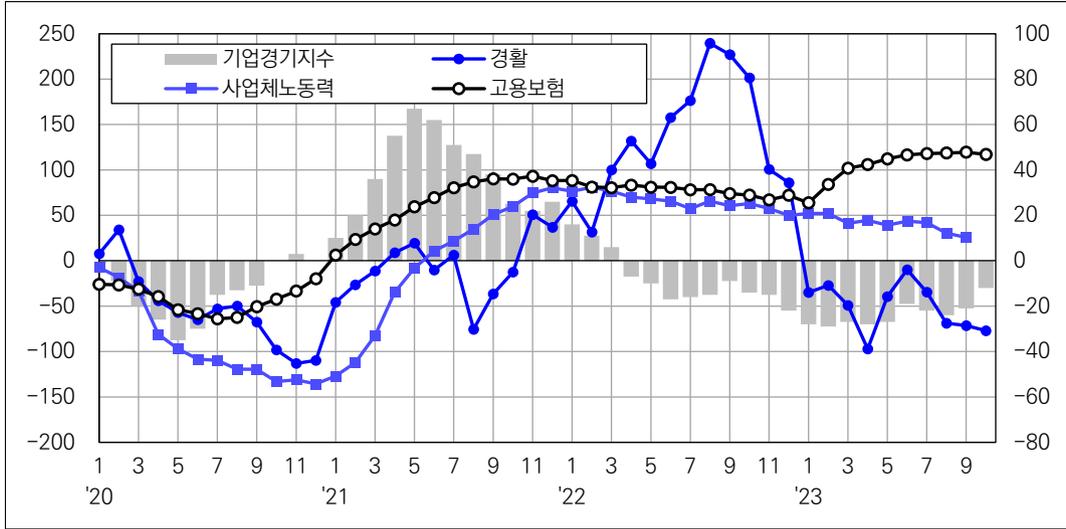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 2023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7만 7천 명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9월 -7만 2천 명).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전년동월대비 3천 명 감소하였으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약 9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가입자 증가폭 확대에 영향을 미침.
  - 제조업의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명 감소함.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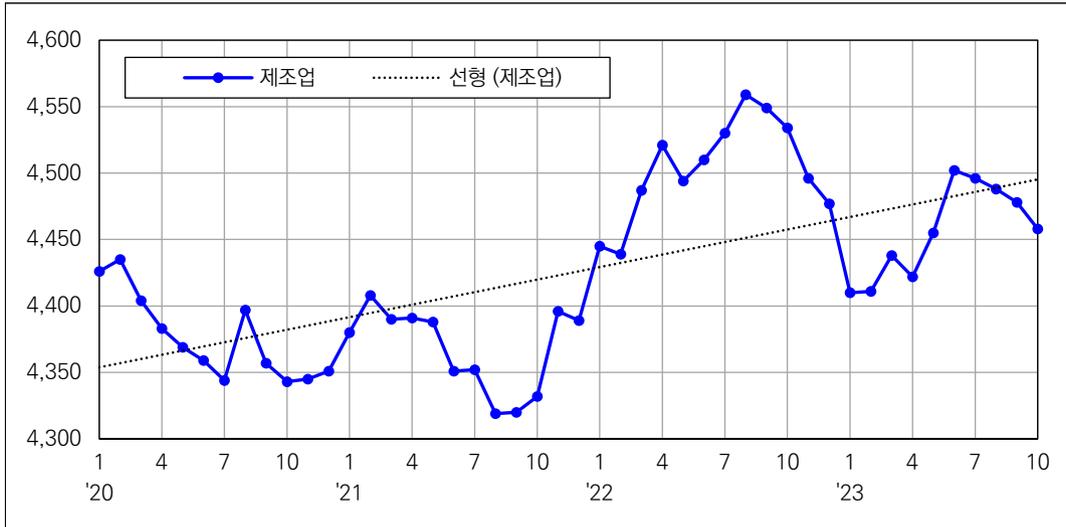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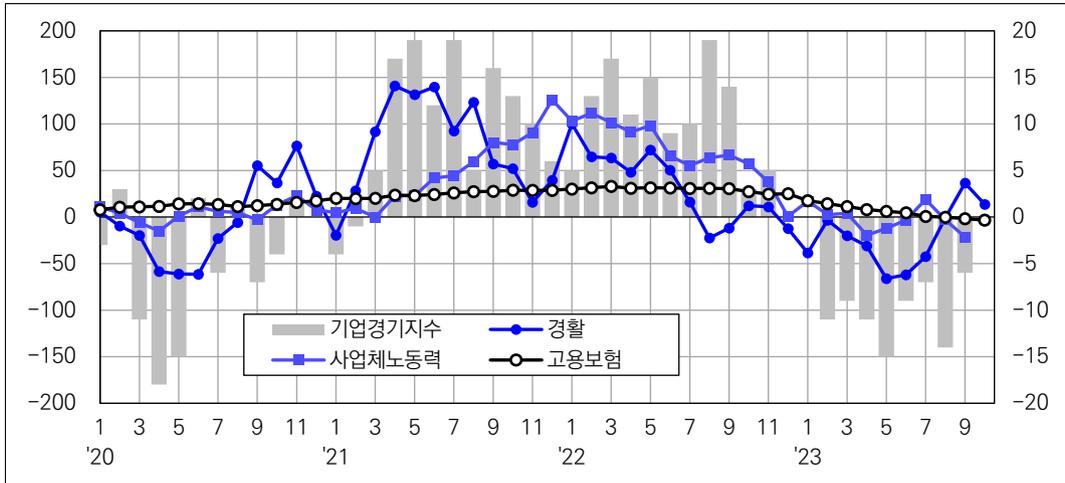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10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4천 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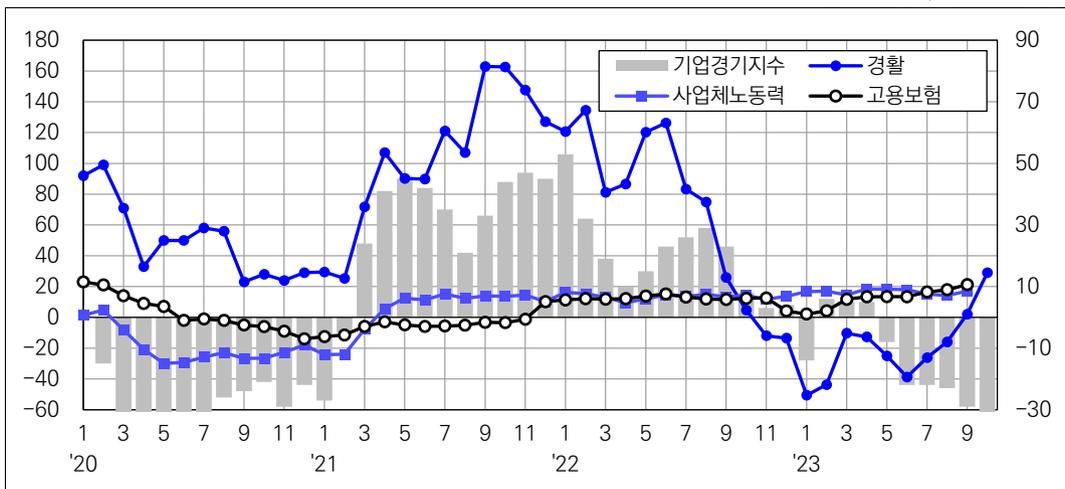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10월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이외 산업 동향을 유지하고 있음.
  - (운수창고) 최근 상용직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하던 추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함.
  - (도소매)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경기지수는 감소세를 유지함.

[그림 8]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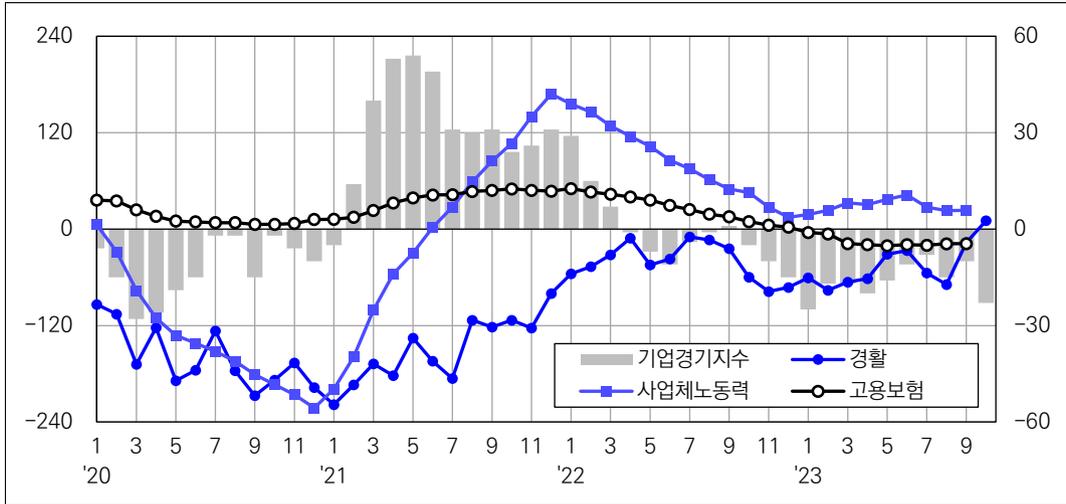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숙박음식점) 경찰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지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9월의 일시적인 증가로 큰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9]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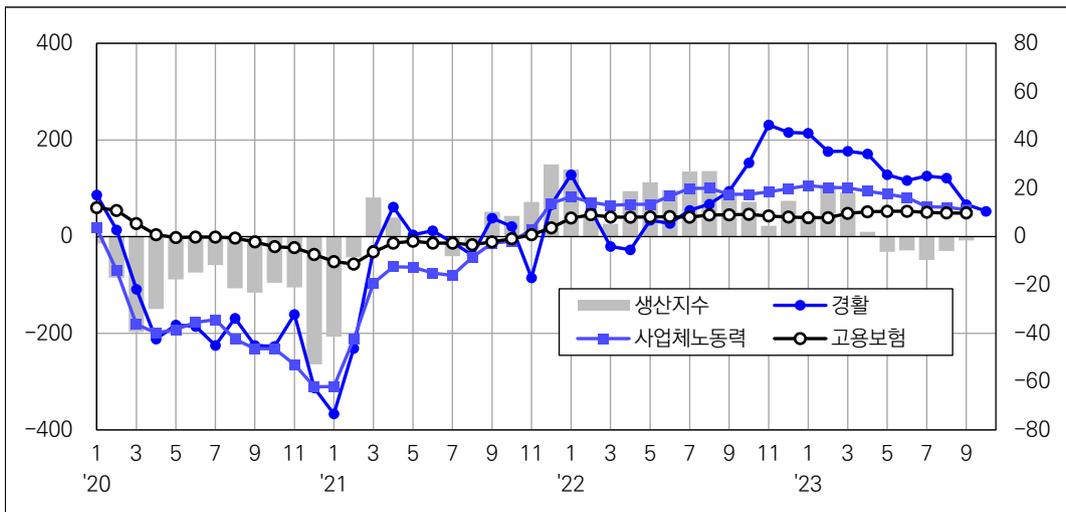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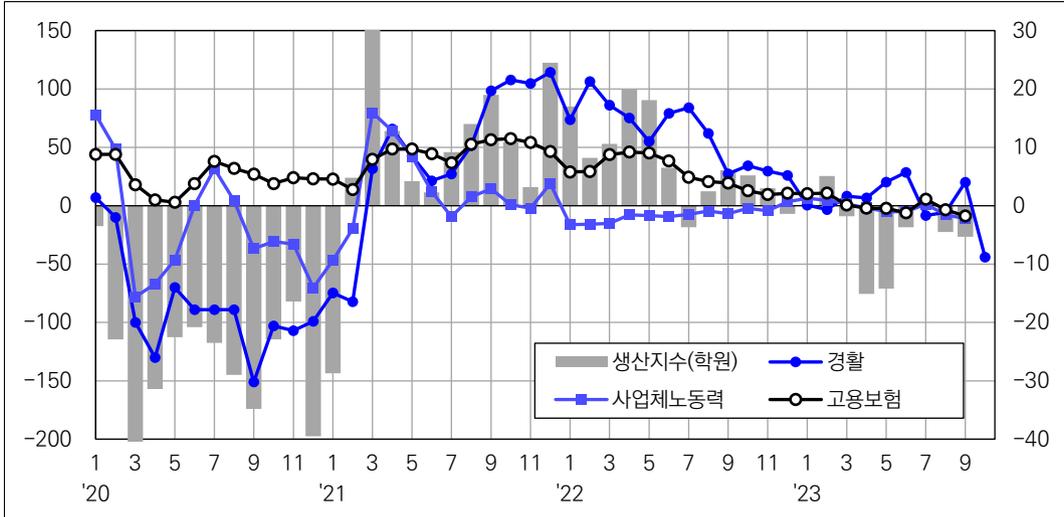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교육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3년 8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2023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4만 2천 원(1.1%)임.
  - 2023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7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6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정액급여증가폭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큼.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 2023년 1~8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1.6%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8월	8월	1~8월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 3.4)	3,527 ( 1.1)	3,689 ( 4.6)	3,869 ( 4.9)	3,837 ( 5.4)	3,702 ( 5.1)	3,916 ( 2.1)	3,742 ( 1.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 3.1)	3,719 ( 0.4)	3,893 ( 4.7)	4,095 ( 5.2)	4,057 ( 5.8)	3,917 ( 5.5)	4,158 ( 2.5)	3,970 ( 1.3)
	정액급여	3,010 ( 4.1)	3,077 ( 2.2)	3,181 ( 3.4)	3,319 ( 4.3)	3,295 ( 4.2)	3,306 ( 4.6)	3,424 ( 3.9)	3,424 ( 3.6)
	초과급여	202 ( 2.7)	200 (-0.9)	208 ( 3.7)	220 ( 5.7)	217 ( 5.9)	217 ( 5.2)	222 ( 2.6)	228 ( 4.9)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46 (16.0)	394 (13.9)	512 (-6.3)	318 (-19.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 6.2)	1,636 ( 7.8)	1,700 ( 3.9)	1,747 ( 2.8)	1,736 ( 2.8)	1,719 ( 2.4)	1,740 ( .3)	1,762 ( 2.5)	
소비자물가지수	105.1 ( 0.4)	105.7 ( 0.5)	104.0 ( 2.5)	109.3 ( 5.1)	107.0 ( 5.0)	108.6 ( 5.7)	111.0 ( 3.7)	112.3 ( 3.4)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0.5	-0.6	-1.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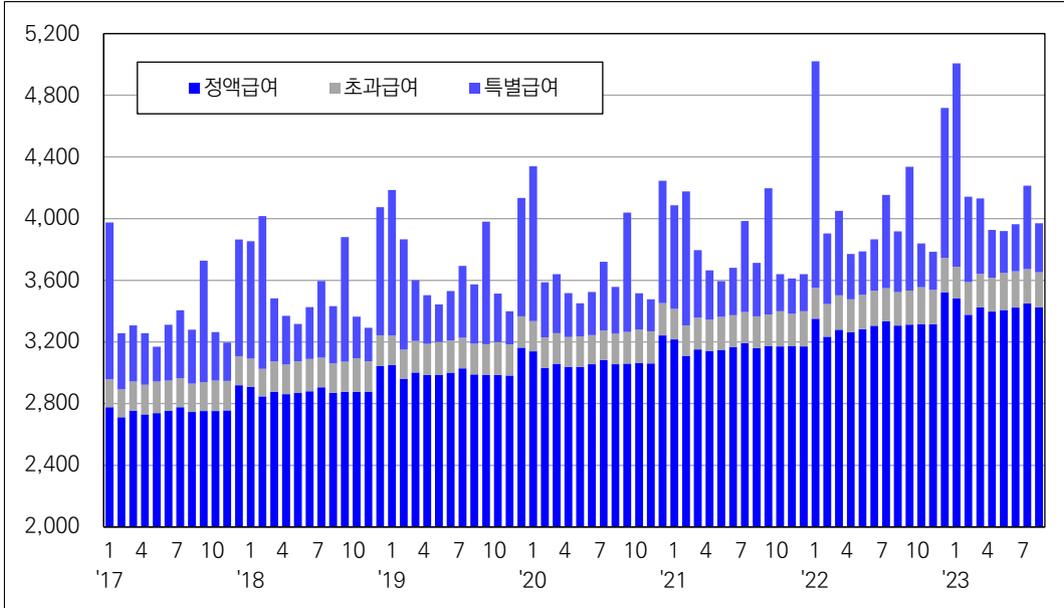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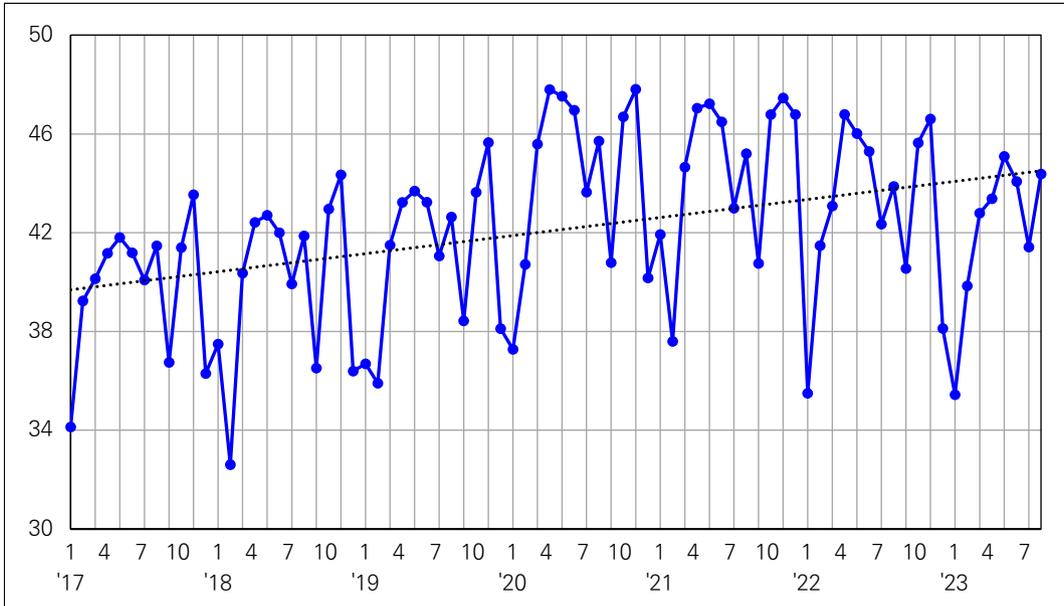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8월 중소기업 임금상승폭 크게 둔화

○ 2023년 8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40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41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sup>2)</sup>

-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폭 둔화가 큼. 중소기업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27.9%)한 영향으로 보임.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특별급여 감소가 컸던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2.3%), 교육서비스업(-6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8.3%), 제조업(-41.5%)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2.3% 감소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 ( 3.8)	3,462 ( 4.4)	3,422 ( 4.7)	3,384 ( 5.9)	3,487 ( 1.9)	3,402 ( 0.5)
	상용임금총액	3,510 ( 3.9)	3,675 ( 4.7)	3,628 ( 5.0)	3,595 ( 6.3)	3,713 ( 2.3)	3,622 ( 0.7)
	정액급여	3,012 ( 3.4)	3,139 ( 4.2)	3,119 ( 4.2)	3,132 ( 4.5)	3,233 ( 3.7)	3,232 ( 3.2)
	초과급여	176 ( 2.9)	186 ( 5.7)	183 ( 5.9)	183 ( 5.2)	183 ( 0.0)	188 ( 2.7)
	특별급여	322 (10.4)	350 ( 8.7)	326 (12.7)	280 (33.9)	297 (-8.9)	202 (-27.9)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 ( 3.4)	1,711 ( 2.4)	1,700 ( 2.3)	1,688 ( 2.1)	1,707 ( 0.4)	1,735 ( 2.8)
대규모	소 계	5,582 ( 6.5)	5,922 ( 6.1)	5,935 ( 7.6)	5,306 ( 2.7)	6,023 ( 1.5)	5,412 ( 2.0)
	상용임금총액	5,687 ( 6.6)	6,049 ( 6.4)	6,059 ( 8.0)	5,417 ( 2.9)	6,164 ( 1.7)	5,539 ( 2.3)
	정액급여	3,973 ( 3.3)	4,155 ( 4.6)	4,113 ( 4.4)	4,115 ( 5.0)	4,283 ( 4.1)	4,289 ( 4.2)
	초과급여	357 ( 5.1)	377 ( 5.5)	372 ( 5.7)	378 ( 4.9)	398 ( 7.0)	409 ( 8.4)
	특별급여	1,357 (18.1)	1,516 (11.8)	1,575 (19.1)	923 (-6.4)	1,483 (-5.8)	841 (-8.9)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 ( 9.1)	2,321 ( 4.8)	2,314 ( 5.8)	2,219 ( 4.9)	2,246 (-2.9)	2,16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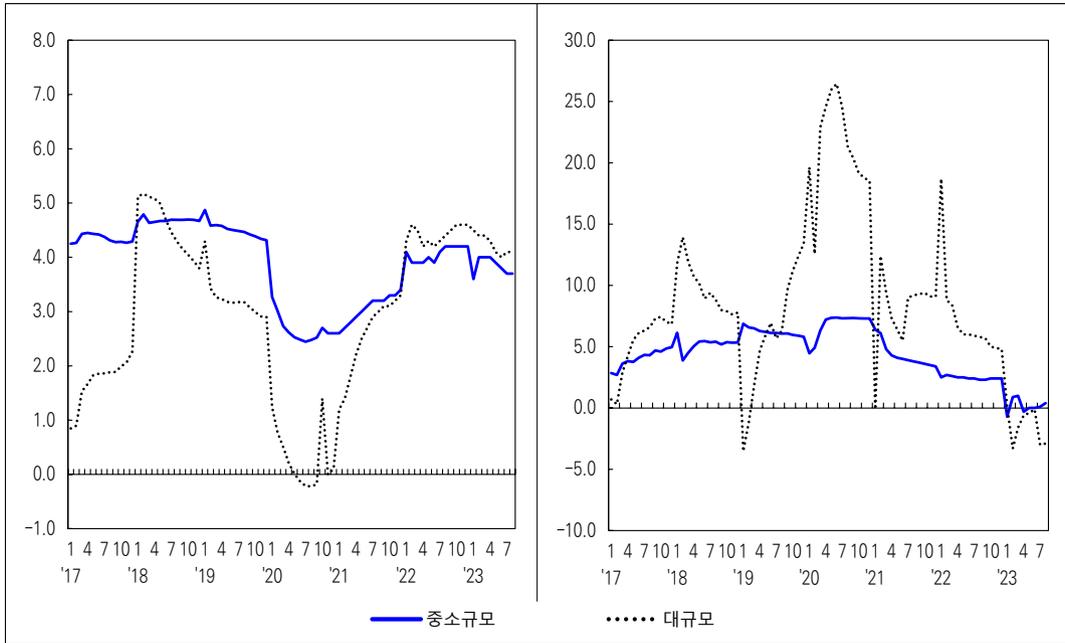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8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

- 2023년 8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2%)이고, 다음으로 정보통신업(3.5%), 도매 및 소매업(3.5%), 숙박 및 음식점업(3.2%) 순으로 나타남.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8%)의 임금 감소가 가장 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 광업(-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0.8%)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 증가함.
- 2023년 8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75만 3천 원)이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7만 9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3,689 ( 4.6)	3,869 ( 4.9)	3,837(5.4)	3,702 ( 5.1)	3,916 ( 2.1)	3,742 ( 1.1)
광업	4,415 ( 2.1)	4,608 ( 4.4)	4,585(4.3)	4,327 ( 2.7)	4,590 ( 0.1)	4,242 (-2.0)
제조업	4,239 ( 6.2)	4,484 ( 5.8)	4,450(7.0)	4,132 ( 4.7)	4,573 ( 2.8)	4,184 ( 1.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 0.3)	6,907 ( 2.3)	6,486(2.4)	5,392 ( 2.0)	7,161(10.4)	5,479 ( 1.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 5.3)	4,168 ( 1.8)	4,034(2.7)	3,994 ( 4.7)	4,149 ( 2.8)	3,962 (-0.8)
건설업	3,106 ( 2.4)	3,229 ( 4.0)	3,201(4.3)	3,194 ( 4.9)	3,322 ( 3.8)	3,266 ( 2.2)
도매 및 소매업	3,551 ( 3.7)	3,773 ( 6.3)	3,708(5.7)	3,642 ( 5.8)	3,862 ( 4.2)	3,767 ( 3.5)
운수 및 창고업	3,795 ( 7.5)	4,040 ( 6.5)	3,924(6.2)	3,907 ( 9.2)	4,116 ( 4.9)	4,014 ( 2.7)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 1.4)	2,004 ( 5.2)	1,988(5.6)	2,015 ( 7.2)	2,075 ( 4.4)	2,079 ( 3.2)
정보통신업	4,796 ( 4.0)	4,999 ( 4.2)	4,994(4.0)	4,672 ( 4.3)	5,096 ( 2.0)	4,836 ( 3.5)
금융 및 보험업	6,963 ( 6.7)	7,324 ( 5.2)	7,362(5.9)	6,661 ( 7.3)	7,332(-0.4)	6,753 ( 1.4)
부동산업	2,954 ( 3.7)	3,086 ( 4.5)	3,091(5.8)	2,984 ( 6.2)	3,102 ( 0.4)	3,045 (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 4.8)	5,376 ( 5.3)	5,324(6.1)	5,246 ( 2.7)	5,320(-0.1)	5,176 (-1.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 3.4)	2,584 ( 3.7)	2,559(4.0)	2,518 ( 3.6)	2,650 ( 3.6)	2,648 ( 5.2)
교육서비스업	3,355(-0.3)	3,435 ( 2.4)	3,458(2.3)	3,373 ( 4.7)	3,528 ( 2.0)	3,411 ( 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 2.5)	3,122 ( 3.6)	3,101(4.2)	3,140 ( 6.8)	3,094(-0.2)	3,063(-2.4)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 4.2)	3,077 ( 2.8)	3,041(2.8)	3,090 ( 5.7)	3,032(-0.3)	2,879(-6.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 5.4)	2,832 ( 4.9)	2,802(4.8)	2,757 ( 3.1)	2,945 ( 5.1)	2,840 ( 3.0)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23년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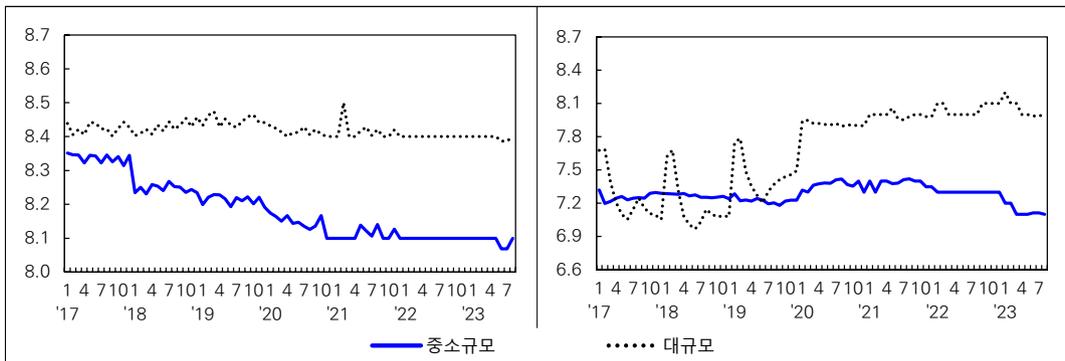
○ 2023년 8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0.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9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해도 근로시간은 0.6시간 감소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8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60.3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2.3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는 165.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증가함.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며,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 때문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 0.1)	158.3(-1.2)	157.7(-1.6)	162.6( 2.2)	156.8(-0.6)	160.3(-1.4)
	상용 총근로시간	167.8( 0.1)	165.9(-1.1)	165.0(-1.6)	170.7( 2.6)	165.5( 0.3)	169.7(-0.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 0.2)	158.2(-1.2)	157.3(-1.7)	163.1( 2.8)	158.3( 0.6)	162.3(-0.5)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 0.0)	7.7( 0.0)	7.6( 0.0)	7.2(-6.5)	7.4(-2.6)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 1.4)	96.4(-1.0)	96.6(-0.6)	97.6(-0.4)	88.3(-8.6)	88.6(-9.2)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9.7(-2.1)	164.6( 3.0)	162.0( 1.4)	165.2( 0.4)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60.9(-2.0)	165.7( 3.1)	163.6( 1.7)	166.9( 0.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9.9(-2.2)	154.7( 3.5)	152.5( 1.7)	155.5( 0.5)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 1.8)	11.0(-0.9)	11.0( 0.0)	11.0(-1.8)	11.1( 0.9)	11.4( 3.6)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 2.2)	125.0(-2.3)	125.5(-2.9)	133.0( 0.2)	118.4(-5.7)	123.4(-7.2)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8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3년 8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5.7%), 숙박 및 음식점업(-5.4%), 광업(-4.8%)임.
  -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9%)의 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제조업(0.5%)의 근로시간도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함.
- 2023년 8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3.9시간)이고, 다음으로 부동산업(173.8시간), 제조업(170.6시간) 순으로 나타난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0.7시간)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160.7 ( 0.1)	158.7(-1.2)	158.0(-1.7)	162.9( 2.3)	157.7(-0.2)	161.1(-1.1)
광업	179.9(-0.7)	174.8(-2.8)	174.6(-3.3)	178.3( 1.7)	168.8(-3.3)	169.7(-4.8)
제조업	173.5( 0.5)	171.1(-1.4)	170.0(-2.1)	169.7( 1.9)	171.7( 1.0)	170.6( 0.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7.5(-3.1)	152.3(-4.9)	160.6( 2.0)	159.8( 4.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 0.2)	174.4(-1.4)	174.2(-1.4)	178.5( 1.4)	171.2(-1.7)	173.9(-2.6)
건설업	135.9(-0.7)	134.3(-1.2)	134.3(-1.2)	138.6( 1.9)	129.5(-3.6)	130.7(-5.7)
도매 및 소매업	163.8( 0.0)	162.3(-0.9)	161.7(-1.4)	168.3( 2.9)	161.0(-0.4)	165.9(-1.4)
운수 및 창고업	160.2( 0.8)	160.6( 0.2)	159.6(-0.3)	166.3( 3.3)	161.8( 1.4)	167.3( 0.6)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6.1(-0.9)	153.0( 1.5)	139.8(-4.3)	144.8(-5.4)
정보통신업	164.1( 0.2)	162.7(-0.9)	162.3(-1.4)	170.9( 3.3)	164.1( 1.1)	171.7( 0.5)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9.1(-2.2)	167.9( 4.2)	161.9( 1.8)	167.8(-0.1)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8.7(-1.8)	176.3( 2.5)	168.7( 0.0)	173.8(-1.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59.7(-1.5)	166.1( 3.7)	160.7( 0.6)	165.9(-0.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 0.2)	159.8(-1.4)	159.3(-1.9)	165.9( 2.0)	159.6( 0.2)	165.8(-0.1)
교육서비스업	137.2( 0.4)	136.1(-0.8)	135.3(-1.5)	142.5( 3.0)	137.1( 1.3)	142.2(-0.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4.7(-2.2)	161.2( 1.9)	152.2(-1.6)	157.2(-2.5)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 2.0)	150.8(-1.2)	150.5(-1.4)	158.0( 1.2)	150.1(-0.3)	154.4(-2.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 1.3)	160.3(-1.3)	159.7(-1.6)	166.0( 2.1)	161.9( 1.4)	166.6( 0.4)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4건
  - －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8건)보다 4건 적은 수치임.
- 2023년 10월 조정성립률 16.7%
  - － 10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65.0%보다 48.3%p 낮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10	14	6	1	0	1	5	0	5	0	0	11	16.7%
2022. 10	18	22	13	4	9	7	1	6	0	2	7	65.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10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보다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1건임.

〈표 2〉 2021년, 2023년 10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10	0	1	1	0	0	0
2022. 10	1	1	1	0	0	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80건
  - 10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68건)보다 12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8.7%(4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1.3%(122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10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10	180	171	40	9	86	7	13	16	566
2022. 10	168	174	39	7	90	5	15	18	45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건
  - 10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건)보다 3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5.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0%(3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3년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10	1	4	1	0	3	0	0	0	2
2022. 10	4	2	0	0	2	0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라이더 10명 중 7명 “알고리즘 정보, 노사 협의해야”

- 10월 24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과 배달플랫폼노조는 토론회를 열고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은 일감을 배분하는 알고리즘 정보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배달플랫폼노조와 국민입법센터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3일간 전국 배달노동자 1,0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조사 참여자의 60.5%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같은 플랫폼기업을 통해 일하고 있었음. 20.5%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12%는 플랫폼과 대행업체에 모두 속해 있었음.
- 조사에서 플랫폼기업 종사자(779명)의 67.3%는 “알고리즘이 배달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음. 알고리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5%나 됐고, 라이더의 73.2%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에 대해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일주일에 5.8일, 59시간을 일했고 175건의 배달을 수행했음. 월 소득은 오토바이 구매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이 약 250만원으로 추정됨.

◆ 일반 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 “계약서 없이 근무”

- 10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일반 배달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 응답자 40.3%는 일하며 업무·리스·렌탈 등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면허조차 미확인했다는 응답이 28.6%, 배달 일을 할 때 필수인 ‘유상운송보험’ 등 보험을 미확인했다는 응답은 23.9%에 달했음.
- 28.6%는 일방적인 배달료 삭감과 수수료 인상을 경험했고, 25.1%는 임금체불을 당했고, 부당 대우에 개인 또는 동료와 함께 항의해 본 응답자는 28.6%뿐이었음.
- 부당 대우에 항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음’(30.1%), ‘딱히 답이 없음’(23.9%) 등의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 ‘산재 신청을 해본 적 없거나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응답은 60.0%에 달했고, 21.5%는 ‘산재 신청 시 사장·관리자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음.
- 다치거나 아파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산재휴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1.17%에 그쳤고, ‘저금해 둔 돈으로 생활했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았음.

-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서 '전속성'(한 사업장에 종속돼 일하는지 여부)이 폐지돼 배달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62.3%는 이 사실을 몰랐음.
-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일반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54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임.

#### ◆ 쿼크·대리기사 등 65만 명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

-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뒤 65만 명가량의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새로 '산재보험 울타리'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음.
-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는 80만 5,000명이었음.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145만 8,000명으로 65만 3,000명 증가했음.
-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끈 직업 유형은 쿼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이었음. 쿼서비스기사는 지난해 12만 2,000명에서 올해 7월 말 3배가량인 37만 2,000명으로 늘었음. 지난해 55명에 불과했던 대리운전기사는 28만 6,000명으로 크게 늘었음.

#### ◆ 서울 6개 노동센터 한 곳으로 통폐합

- 10월 24일 서울시는 통합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해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11월 1일 공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연 후 오는 12월 5일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음.
- 2015년 처음 문을 연 센터는 노동 상담과 법률구제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시설임.
- 그동안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 기능별로 따로 운영했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임.
- 감정노동센터와 서남·동북권 종합센터 2곳은 올해 연말, 도심·동남권 종합센터 2곳은 2025년 9월 위탁 계약 종료와 함께 문을 닫고 노동권익센터로 일원화됨.
- 통폐합 대상 시설 종사자는 권익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재배치될 예정임.

#### ◆ 조선소 이주노동자 64% '기회 된다면 떠나고 싶다'

- 10월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때문에

- 조선소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보고서를 보면 63.7%는 기회가 된다면 조선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 이직하고 싶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질문(복수응답)한 결과,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서”가 67.2%로 가장 많았음.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보다 임금이 낮아서”(34.9%), “작업장 환경이 너무 위험해서”(23.9%), “오래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21.8%) 등이 뒤를 이었음.
  - 평균시급은 9,680원이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인 9,260원을 받는 이들이 77.1%로 가장 많았음.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90.5%이며 이 중 숙식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61.8%였음.
  - 공제된 숙식비용은 평균 6만 2,206원이며 최저 1만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편차가 매우 컸음. 금속노조는 “숙식비를 높게 책정해 임금을 낮추는 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1년간 조선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한 비율은 26.7%, 작업으로 질병을 얻은 비율은 24.7%였음. 작업장에서 폭행·폭언을 경험한 이들은 17.3%였음.
  -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르겠다”가 47.3%, “가입할 의사가 있다”가 40.8%였음.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질문(복수응답)한 결과,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음.
  - 본국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은 비율은 13.3%, 한국 입국 뒤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은 비율은 9.5%였음.
  - 금속노조는 지난 5~7월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한화오션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410명(10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 410명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E-9) 비자가 62.8%,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가 25.6%로 다수였음.

#### ◆ 현대중 노조, 노동복지기금 2억 원 출연

- 11월 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열린 2023년 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안건을 상정한 결과 참석한 대의원 만장일치로 2억 원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울산 동구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이번 기금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용자 및 지원 △노동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노동자의 긴급한

- 복지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됨.
-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울산 동구는 조선업 불황기였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노동자 3만 4,000명이 해고됐음.

#### ◆ 화학·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44% MSDS 규정 위반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220곳을 대상으로 MSDS 제도 이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97개 사업장에서 2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 전체 사업장 중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은 20.9%(45곳, 85건)로 나타났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14.1%(31곳, 33건)로 확인됐음.
- 지난해에는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과 MSDS 교육 미실시 사업장이 각 17.3%, 12.1%였는데 비해 증가한 것임. 반면 사업장 MSDS 제출 위반율은 16.4%에서 3.6%로 감소했음.
- 이 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작업장 내 국소배기 장치 미설시 사업장도 33곳 적발됐음.
- 조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8주간 이뤄졌음.

#### ◆ 폭행 산재 5년 새 35.3% 증가

- 10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2022년 5년간 총 2,164건 발생했음.
-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9건, 2022년 48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
-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폭행 산재가 가장 크게 증가했음. 2018년 102건에서 2022년 174건으로 70.6% 늘었음. 정부·공공기관도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3% 증가했음.
- 시설관리의 경우는 2018년 59건, 2019년 61건, 2020년 48건, 2021년 67건, 2022년 60건으로 연평균 50~60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부 지방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중부청 182건, 부산청 78건, 서울청 77건, 광주청과 대전청 각각 57건, 대구청 32건 순임.

◆ 통계조사원 10명 중 3명꼴 성희롱 당해

-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통계조사원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은 응답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다고 밝혔다.
- 응답자의 56.0%는 '근무 중 대상자로부터 신체적 위협 또는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37.2%는 '근무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했다'고 했고, 46.0%는 '응답자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했음. 97.2%는 '조사 업무 중 각종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낀다'고 했음.
- 통계조사원들은 조사 중 경험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 '신체적 위협, 폭언, 성적 수치심, 사적 연락 등을 경험했을 때 대응'을 묻자 49.9%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음.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했다'는 응답은 15.0%였고, '직장 내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0.4%에 그쳤음.
-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도 잦은데 사고 처리는 '개인'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음. 응답자의 54.7%가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재해 치료를 위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경우는 4.9%에 그쳤음. '개인 부담'이 69.1%로 가장 많았음.
- 노동시간과 임금·수당 등 처우도 열악했음. 통계조사원의 55.3%가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3.7%에 달했음.
-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규정된 초과근무시간을 다 써서'(72.0%)가 가장 많았고, 조사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보상은 월 8시간(수당 3시간, 대체휴무 5시간)뿐이었음.
- 통계조사원의 86.4%가 '기본급·복리후생에 불만족(매우 불만족 47.2%, 불만족 39.2%)'한다고 답했음.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0%였음.
- 응답자의 95.8%가 여성이었고, 50대 73.1%, 40대 20.5%로 대부분이 중년이었음. 조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통계청노조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으로 진행됐음.

◆ 직장 젠더감수성 73.5점

- 10월 22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젠더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73.5점(C등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 젠더 감수성 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전체 직원 성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음'(58.4점)이었음.

-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움'(60.3점),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채용'(63.8점), '성별에 따른 임금·노동조건 차이'(64.3점), '성별에 따른 교육·배치·승진 차이'(64.7점) 등이 뒤를 이었음.

#### ◆ 직장인 10명 중 9명 “재택근무 만족”

- 10월 29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택근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 10명 중 9명(88%)은 “만족한다”고 밝혔음.
-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였음. 재택근무 경험자 가운데 70.2%는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답한 데 반해, 재택근무 미경험자들 중에서는 50.3%만 ‘효율적’이라고 답하여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음.
- 재택근무 경험과 무관하게 업무 효율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는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66.5%)와 30대(62.9%)의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효율적이라고 답했는데, 40대(46.6%)와 50대(46.8%)는 절반 이하가 효율적이라고 답했음. 일반사원의 경우 59.4%가 효율적이라고 답했지만 상위관리자급은 33.3%에 그쳤음. 중간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은 각각 43.1%, 54.2%가 효율적이라고 답했음.

#### ◆ 경총 “기업 재택근무 줄어 58%만 시행”

- 11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1%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라도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 가운데 61.9%는 ‘필요 인원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음.
- 재택근로 대상을 일정 비율 정해 놓는 ‘교대 순환형’과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부서별 자율 운영’ 방식이 각각 19.0%를 차지했음.
- 재택근무 축소 또는 중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던 기업도 절반가량에 달했음.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지만, ‘일정 부분 반대가 있었지만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36.7%,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 기업은 10.0%로 나타났음.

- 재택근무 확대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4.5%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답했음. 이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25.8%), '향후에도 지속 활용·확산'(9.7%) 등이 뒤를 이었음.

◆ 주 69시간 근무제, 국민 3명 중 2명 '반대'

- 11월 8일 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 주 최장 52시간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데 '반대한다'가 66%였음. '찬성한다' 29.6%보다 배 이상으로 많았음.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약간 부정적)이 60.5%로, 긍정적 응답(36.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었음.
- 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61.1%가 긍정적으로 답했음.
-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 이상이었음.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 인식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34.8%)보다 높게 나타났음.
- 공공기관 우선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다'(27.7%)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